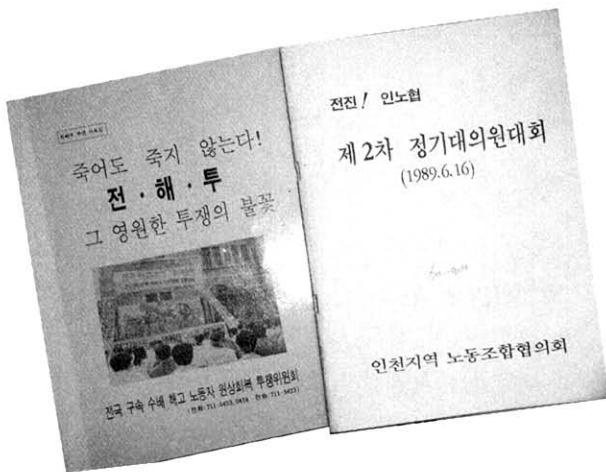


## 해고복직투쟁의 기록 산실,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사료

이창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인해협)는 1987년 7월 19일 인천 주안1성당에서 800여 해고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해고 반대, 복직 투쟁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위한 대중조직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인해협에 소장된 사료는 인천지역 각 사업장의 해고·복직투쟁의 사료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및 각종 노동운동 사료로 구성되어 있다.

해고·복직투쟁 사료가 대중

당시 인해협은 그야말로 해고자들의 생활공간이자 활동공간이었다. 김지선(인해협 초대 사무국장)의 말을 들어보자.

“저녁에는 교도소처럼 해고자들이 두 줄로 이어져 있는데 사람이 정말 빠글빠글했어요. 인천에서 조합 활동하던 사람들은 모두 여기 모였어요. 활동가들의 공개적인 사업본부였다고나 할까? 현장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풍물 등 모든 준비를 같이 하고, 투쟁 현장 지원 사업을 벌였어요. 1년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하

1987년 6월항쟁, 이 이름만 들어도 아직까지 설레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 당시 명동 근처에 근무했던 필자는 이른바 ‘넥타이부대’로서 그 부근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새롭기만 하다. 하지만 6월항쟁과 맞먹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6월항쟁에 비해 아직 이름값만큼의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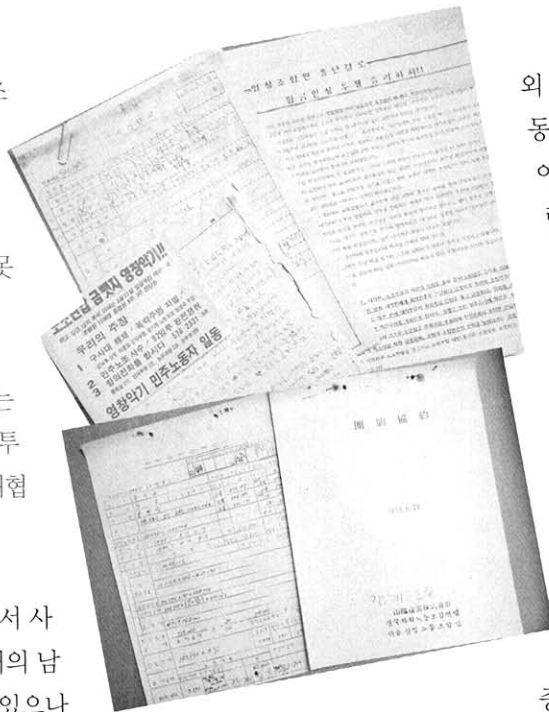
면서 사업장 임투, 노조 건설 등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집 있는 사람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24시간 대기 상태였어요. 타 지역에서 인해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투쟁이야기 들으러.”(「인해협 12년」 57쪽 중에서)

인해협 사료는 거의 문서 사료이며 시청각 사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사진은 있으나 인덱스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사진 사료(앨범 5권 분량)는 추후에 기증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인천지역의 목재 사업장, 운수 사업장, 대우그룹, 영창, 진도, 여성 사업장, 인천제철 등 각 부문별 사업장의 복직 투쟁, 재판 기록, 사례집, 소식지, 심지어는 기업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총 망라되어 있다. 단체 연대자료로는 전민련, 민주노총, 전해투 관련 자료가 있고, 인해협의 운영자료, 교육자료, 역사자료, 수익 사업 관련 자료 등 인해협 자체 자료들이 있다.

수집 사료의 양은 총 32상자이고, 사료 파일마다 원래의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여 정리하고 수집하였다. 대부분의 사료는 1987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생산된 것이 주종을 이룬다.

사료 중 특기할 만한 것은 1988년 금성사 평택공장에서 보낸 블랙리스트, 인해협 수익사업대장, 인천지역



의 울산지역의 노동운동 자료, 통일 운동자료 등이 눈에 띈다.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투 관련 자료 외에 노조위원장 선거가 쟁점이 되는 자료가 많이 보인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블랙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어 인해협의 사료는 70,80년대 노동운동의 산실이었던 영등포 산선, 인천 산선(현재 사료 수집 협의 중), 청주 산선(현재 사료 수집 협의 중)의 사료와 함께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 될 것이다.

〈참고 : 인해협 사료 중 주요 사업장의 노동운동 사료〉  
 한영알미늄, 한국미성, 진진양행, 세진양행, 한양합판, 대우자동차, 한독, 영창약기, 효성기계정밀, 경인실업, 대양금속, 동흥전기, 동서식품, 삼익약기, 대한마이크로전자, 보루네오, 로얄동도, 진영스텐다드, 세화상사, 신성무역, 삼양유지 그로리아, 인천제철, 대진공업, 한국타이어, 우일통상, 제물포버스, 경동산업, 산용실업, 대성정공, 영풍운수, 한국메탈, 흥인산업, 지성병원, 신명물산, 영원통신, 알파제약, 한국티타늄, 동남래미콘, 경신공업, 일진중공업, 동부그룹, 한세실업, 코리아스파이서, 대우전자, 한독금속, 한양목재, 고려연마, 한미금형, 광원산업, 남일금속, 이천전기, 대우중공업, 아남정공, 진성전자, 한라중공업, 삼협전자, 우석전자, 삼지실업, 서흥, 이화마메드, 한국샤프, 고니정밀, 청우산업, 해태전자, 상민전자, 태강철광 등



##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 사료관(Archives) 및 기념관 건립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해외자료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